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아 미래세대와의 소통과 자비실천활동을 펼쳤다. 광주 자비신행회가 주최한 요리교실 참여한 이후 친해진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진우 스님.



광주 자비신행회가 개최한 요리교실 이후 진우 스님과 아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배식봉사도 진행했다.



진우 스님이 담양 용흥사에서 108배 정진을 하고 있다.

108배·소통으로 맞은 진우 스님 취임 200일

담양 용흥사서 108배로 하루 시작
"108배 자신 돌아보는 시간" 강조
광주 자비신행회서 청소년과 소통
피자 요리 수업, 배식 봉사 함께 해

담양 · 광주=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았다. 지난해 9월 28일 취임 이래 하루도 빠지지 않았던 108배로 취임 200일 연 진우 스님은 전남 광주 지역 청소년들과 소통 · 자비실천 행보를 이어갔다.

취임 200일, 어김없이 108배

총무원장 취임 이후 시작한 '108배 정진' 은 200일이라고 빠지지 않았다. 오전 7시 30분 담양 용흥사 대웅전에서 진행된 진우 스님의 정진에는 용흥사 사부대중이 함께 했다. 108배를 마친 진우 스님은 소참법문으로 취임 200일 소감을 대신했다.

"취임 200일이라고 특별히 의미를 둘 필요도 없고,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밝힌 진우 스님은 불교는 근본이 자비에 있음을 강조했다.

진우 스님은 "불교는 '모든 중생이 일체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는 자비행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지만 아직도 사회 소외계층들 많이 있다. 불교와 우리 종단은 이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우 스님은 자신이 왜 108배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도 신도들에게 소개했다. 스님은 "108배 정진을 하며 부처님이 강조하신 자비심을 모든 사람들이 갖길 바라는 첫 번째 서원을 세웠다. 두 번째로는 한국불교 중흥과 부흥을 발원했다"면서 "세 번째로는 출가 수행자로서의 마음가짐을 되새기기 위해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도들에게도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인 108배 정진을 권했다. 진우 스님은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 결국 내가 문제다. 남을 탓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면서 "결국 내 자신이 평안해야 한다. 내 업장을 녹이고 괴로움이 없어야 자리이타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108배 정진이 좋다"면서 "108배 정진을 많은 사람들 함께 하길 바란다"고 권했다.

지역 청소년 소통… 기금 전달도

108배 정진을 마친 진우 스님은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미래 인재인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자비행을 펼쳤다.

진우 스님은 지역 불교 단체인 (사)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형)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직원들과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자비신행회는 광주 지역 복지활성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교육, 구호산업 및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복지나눔사업을 비롯해 소외계층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웃과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불교 공동체다.

진우 스님은 자비신행회의 '나르샤(날아오르다 순우리말) 프로젝트' 인 토요배움학교 학습과정을 둘러보고 요리교실에 참가해 어린이 청소년 28명과 함께 피자 만들기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치마를 직접 두르고 조장이 된 진우 스님은 아이들에게 칼 사용법을 가르치며 함께 피자를 만들었다. 동행한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도 아이들과 피자를 만들며 소통을 이어갔다.

피자 완성 직후 진우 스님은 "아이들이 너무 명랑하고 밝다. 함께 피자를 만들고 이야기를 나누니 엔돌핀이 샘솟는 것 같다. 너무 즐겁다"며 밝게 웃었다.

함께 피자를 만든 양시아(광주 동진여중 1학년) 학생은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까 걱정됐는데 스님과 함께 해서 재미있고 즐거웠다"면서 "스님에게 식칼 사용법도 배웠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스님의 방문에 선생님과 아이들은 취임 200일 축하 떡케이크와 기념 꽃다발을 전달했으며, 진우 스님은 100명의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을 증정하며 미래인재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와 함께 진우 스님은 원력과 공심으로 지역 사회활동 운영을 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비신행회를 격려하기 위해 아름다운동행 자비나눔 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진우 스님과 부실장 스님들은 자비신행회 1층 빛고을 청소년식당에서 100명의 아이들을 위한 점심 배식을 진행하며 공양을 함께 나누기도 했다.

진우 스님의 방문에 지역 불교계는 많은 힘이 됐다고 입을 모았다. 김삼옥 자비신행회 상임이사는 "총무원장 스님께서 방문해주셔서 선생님과 학생, 자원봉사자 모두 큰 격려를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자비신행회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전할 수 있는 불교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우 스님 "이젠 불교중흥 종책 본격화"

자비신행회 방문행사서 취임 200일 소회 밝혀

"지금까지는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제는 한국불교를 중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종책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4월 15일 광주 자비신행회 방문 행사에서 취임 200일 축하 떡케이크와 기념 꽃다발을 전달받은 뒤 이 같이 소회를 밝혔다.

"1700년 전 한반도에 도래한 불교는 우리 민족의 강인한 민족성과 자비 정신에 영향을 줬고, 불교의 자비 정신은 한국인의 DNA에 담겨져 있다"고 전제한 진우 스님은 "한국불교가 다시 살아나야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주요 종책 과제인 종단 표준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소개했다. 진우 스님은 취임 이후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 바로 모시기와 함께 도심 명상센터 건립,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종책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진우 스님은 참선, 명상 전문가들과 직접 스터디를 하며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참선을 바탕으로 한 종단 표준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템플스테이와 향후 건립될 명상센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진우 스님의 복안이다.

진우 스님은 "선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보급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면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종단 표준 명상프로그램은 명상의 본류이자 원류가 불교임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명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한국불교가 융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우 스님은 앞으로의 각오도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제 취임 200일이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지금부터는 한국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종책을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4월 15일 취임 200일을 맞아 방문한 광주 자비신행회에서 취임 200일 소회를 밝히고 있다.

광주=신성민 기자

海印寺
生前預修齋

귀의 삼보 하옵고,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는 불기 2567년 계묘년 윤달을 맞이하여 '생전예수재 49일 기도'를 봉행합니다.

해인사에서 봉행되는 생전예수재는 팔만대장경에 수록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생전예수재를 봉행하여 내세를 위한 공덕을 쌓고 참회를 통해 업장소멸하여 사후에 고통과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극락왕생하고자 하는 불교의 전통 의식입니다. 국보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이 봉안된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생전예수재의 인연을 맺어 세상에 둘도 없는 무량한 공덕을 쌓는 불연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해인사 주지 혜일 정례



법보종찰 해인사

입재 2023년 3월 26일(일) 오전 10시
초재~6재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회향 2023년 5월 13일(토) 오전 10시
장소 해인사 대적광전

동 참 금			
설판재자	大설판 100만원	中설판 50만원	小설판 30만원
생 축	1인 3만원		
영 가	1위 1만원		

▪문의 및 접수 접수실 055)934-3105~6
▪계 좌 안 내 농협 351-0744-6572-93 (예금주 : 해인사)



국보 제206호 '불설예수시왕생칠경' 변상(해인사 소장)